이름에 비낀 사랑의 세계



평양출판사
주체107(2018)년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들이 많다.

그가운데는 평범한 사람들이 올린 간절한 소청을 헤아려 친히 지어주신 아기이름들도 있고 새로 무은 현대적인 고기배들과 종합봉사선의 이름도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거리들과 공장, 기업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의 명칭도 있다.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깊고깊은 뜻을 담아 몸소 지어주신 하많은 그 이름들마다에는 이민위천을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끝없는 로고와 헌신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시대를 격동시키고 만사람을 울리는 뜻깊은 이름들가운데서 그 일부에 깃든 사연을 여기에 전하려고 한다.

《충도》와 《청송》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봐야 하는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가 평범한 인민들의 간절한 소청을 헤아려 갓 태여난 아기들의 이름을 지어준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언제인가 옥류아동병원에는 태여난지 얼마간 지났지만 아직 자기 이름이 없이 어머니의 이름을 병력서에 올린 한 어린이가 입원하였다.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의사선생님들에게 아기의 어머니가 터놓는 사연은 참으로 감동깊은것이였다.

그 녀성으로 말하면 남편과 함께 어느 한 비행부대의 비행사로 복무하고있는 평범한 녀성비행사였는데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의 부부가 복무하는 비행부대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오신줄도 모르고 산후휴가를 받고있던 녀성비행사는 집으로 급히 달려온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부비행사들을 다 만나보고싶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였다는것이 아닌가.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부부비행사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평양에 올라가 보고싶을 때마다 볼수 있게 쌍쌍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나온 녀성비행사는 남편과 나란히 영광의 단상에 서게 되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어려움도 다 잊은 녀성비행사는 그이께 갓 태여난 자기 아기

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바라는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그이께 삶과 운명을 다 맡긴 이 나라의 한 녀인이 가슴속에 솟구치는 진정을 다하여 스스럼없이 올리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청이였다.

뜻밖의 청을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아들의 이름이야 잘 달아야지라고 하시며 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겠다고 쾌히 승낙하고 약속해주시였다.

순간 녀성비행사는 온 하늘을 통채로 안은듯이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하지만 그후 매일같이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들으며 더없이 분망하신 그이께 너무도 외람되게 부담을 끼쳐드린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망을 쉽게 지워버릴수가 없어 혹시나하는 기대를 안고 그때까지도 아기의 이름을 짓지 않고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의사선생님들의 극진한 치료와 정성으로 아기가 완쾌되기 시작하였는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문도 없이 옥류아동병원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간 녀성비행사는 아기를 안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가 정신없이 달려가보니 병원의 아래층에서는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꿈같은 영광을 지닌 수많은 녀인들과 아이들이 어깨성을 쌓고 울고웃으며 그이께로 안겨들고있었다.

잠결에도 그리움에 모대기며 마음달리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아들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었지만 격정의 인파로 하여 그는 한걸음도 옮길수 없었다.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며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바래워드린 녀성비행사는 너무도 아쉬워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날줄 몰랐다.

이때 병원의 한 일군이 그에게로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네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고 전하는것이 아닌가.

순간 녀성비행사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사실앞에 놀라움과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병원일군들을 통하여 녀성비행사가 아기와 함께 입원한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부대를 찾으시였던 일을 정깊이 회억하시며 마치 마음의 빚을 지신듯 아기의 이름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지만 신통한 이름을 고르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꼭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마디마디에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전해들으며 녀성비행사는 격정의 오열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상상도 할수 없었다.

얼마후 입원중에 있던 그 녀성비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대회가 페막된 다음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석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더니 환한 미소를 담으신채 동무들과 한가지 더 의논할것이 있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어느 한 비행부대 부부비행사의 아기이름을 짓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천사만사를 다 돌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녀성비행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대하고 뜻깊은 대회장에서 아기의 이름짓는 문제를 대회의정처럼 의논하자고 하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이 어디 또 있겠는가.

대회장은 놀라움과 환희, 격정의 파도로 세

차게 출렁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비행부대에 갔을 때 갓 출생한 비행사부부의 아들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지어주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그들의 모습을 찾아보시려는듯 자애로운 시선으로 대회장을 둘러보시며 혹시 그사이 아기의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녀성비행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자고 한다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을 가라는 의미에서 《충도》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비행사들은 모두 떨쳐일어났다.

우렁찬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는 속에 비행

사부부는 더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채 주석단으로 달려올라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영광을 잊지 않고 온 가족이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하늘길을 날으는 충정의 붉은 매가 되겠다고 눈물속에 맹세를 다지는 이들부부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아들을 잘 키우라고 따뜻이 당부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그이께서 친히 지어주신 아기이름을 전체 비행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값높은 표창처럼, 승리의 선언처럼 목메여 부르고 또 불렀다.

《충도》!

한없이 거창한 령도자의 사색, 더없이 방대한 위인의 구상속에 또 하나의 중대사로 간직되여있은 평범한 비행사가정의 아기이름, 그것은 조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열렬한 축복이였다.

이것이 어찌 비행사가정 하나만이 받아안은

축복이랴.

복받은 이 땅에 고고성을 터치며 태여나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사로운 축복속에 참으로 뜻깊은 이름을 받아안은 아기들가운데는 청송이도 있다.

연청송, 그 이름에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 연구사가 올린 편지를 받으시였다.

편지에는 한달전에 태여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소박한 청이 담겨져있었다.

편지를 다 읽어보고나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곁에 있던 일군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부모들을 대신하여 이름을 다같이 지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휩싸여 저저마다 이름들을 생각하여 내놓았다.

그들이 지은 아기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청송이

라고 하자고, 앞으로 그애가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처럼 억세고 대바른 훌륭한 일군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연청송이라고 짓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가 이름이 뜻이 깊으면서도 부르기가 좋고 듣기도 좋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래도 애아버지를 비롯한 집식구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이이름을 처음 지어보았는데 칭찬을 받을것 같은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기뻐할것이라고 대답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렇다면 내 마음도 놓인다고, 그들의 평가를 기다려보자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향해 좀 늦은감은 있지만 동무들도 자식들을 하나씩 더 보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가 이렇듯 평범한 인

민들의 소청도 허물없이 받아주고 갓난아기의 이름을 심혈을 기울여 지어준적이 있으며 그들의 평가를 무겁게 대한적이 있었던가.

인민들의 자그마한 소망도 정을 다해 품을 들여 기어이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속에 평범한 비행사가정과 연구사가정의 아기이름들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세상에 태여날수 있었다.

충도와 청송!

참으로 그 이름은 그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부모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로만 억세게 가고갈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백배해주고있다.

《단풍》호고기배와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우나 물속으로 자유로이 다닐수 있게 만든 배는 인류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한다.

배의 력사는 B.C. 5000년경 닐강하구의 사람들이 파피루스(갈의 한 종류)라는 풀로 떼를 만들어 리용한 때부터라고 볼수 있는데 그 시기 만들어진 배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벼운 짐이나 실어나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직 배라고 하기에는 원시적인것들이였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증기기관이 발명된 그때로부터 배무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배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가 추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수많은 고기배들과 려객봉사선들, 화물선들과 여러가지 군함들이 강과 호수,

대양을 누비고있는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현대문명의 또 한 측면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많은 려객선, 화물선, 어선, 군함들마다에는 다 자기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

자기 나라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름과 지명을 땄거나 력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등 배들의 이름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그 무수한 배이름들가운데는 오늘 우리 인민 누구나가 다 정답게 부르며 그 사연을 뜨겁게 전해가는 《단풍》호도 있다.

《단풍》, 이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시고 사색도 실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고기배의 이름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안에 위치한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처음으로 찾으신것은 궂은비가 내리던 주체102(2013)년 5월

어느날이였다.

어로공들도 바다에 나가기를 저어하는 험한 날씨에 파도사나운 배길을 달려 수산사업소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는 그길로 곧장 부두에 나란히 계류해놓은 고기배들에로 다가가시였다.

모양이나 크기가 꼭같은 4척의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름름한 자태를 자랑하며 물우에 떠있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해빛같은 환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 배들로 말하면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보내줄수 있는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하루빨리 무어내도록 친히 조치를 취해주시여 마련된 배들이였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발판을 타고 고기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최신식어군탐지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여러가지 방법의 어로작업을 할수 있는 어구들을 포함하여 물고기잡이에 필

요한 모든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새 고기배들이 손색없이 무어진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시며 앞으로 8월25일수산사업소가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대중적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수산사업소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에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러자면 새 고기배 한척당 물고기를 1 000t씩 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자식을 초소에 세운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고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물고기잡이과제를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안겨주시랴.

정녕 그것은 우리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간곡한 당부였다.

이윽고 배에서 내리시여 비물이 흐르는 구내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수산사업소 일군들에게 눈길을 주시며 고기배의 이름을 어떻게 짓겠는가 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리시였다.

얼마전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보내주신 고기배를 받아안고 그이께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배의 이름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소청도 함께 적어 편지를 올렸던 일을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철령》호라고 달자는 의견도 있지만 배에는 《철령》호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정히 이르시고나서 고기배들의 이름을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호라고 다는것이 좋겠다고, 이 이름에는 물고기를 쾅쾅 잡아 군인들에게 많이 먹이기를 바라는 자신의 기대와

당부가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풍요한 가을의 상징—단풍!

강산에는 화창한 봄계절이 한창이여도 그이의 마음속에는 인민의 행복이 알차게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이 불타고있었다.

《단풍》, 그 부름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 자나깨나 불타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후덥게 전해주는 참으로 뜻깊은 이름이였다.

어찌 《단풍》호고기배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절절한 소원을 안으시고 몸소 지어주신 뜻깊은 배이름들가운데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물결우에 두둥실 떠있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도 있다.

자연현상으로만 보아오던 저 하늘의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맑고 푸른 물결우에 내려앉은듯 볼수록 멋있고 기쁨으로 설레이게 하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이 배의 이름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무어 옥류교와 대동교사이에 띄워놓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차례나 배의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새로 건조되게 될 종합봉사선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종합봉사선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달아주신데는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의 상징으로만 보아오던 무지개를 현실에 펼쳐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시려는 웅지가 어려있었다.

자신께서는 자그마한 목선에 오르시여 병사들

을 찾아 풍랑사나운 배길을 헤쳐가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저 하늘의 무지개마냥 아름답고 호화로운 봉사선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이 건조되였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날 대동강유보도에 서시여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만족한 시선으로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이름그대로 칠색령롱한 무지개같다고, 《무지개》호를 대동강에 띄워놓으니 대동강이 더욱 환해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어둠이 깃든 대동강에 띄워놓은 《무지개》호의 전경은 낮에도 희한하였지만 밤에는 이채로운 불장식효과로 마치 하늘의 무지개를 방불케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지개》호를 가까이에서 보니 더 볼만 하다고 하시며 《무지개》호

가 대동강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준다고, 시인들이 《무지개》호에 와보면 시상이 저절로 떠오를것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양시의 면모가 수시로 달라진다고 감탄한다는데 그럴만도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무지개》호안을 돌아보시면서 건조실태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신 그이께서는 설계와 내부시공이 최상의 수준에서 잘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이번에 평양에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가 생겨났다고, 《무지개》호가 다른 나라의 호화유람선들보다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크든작든 무엇을 하나라도 이룩해놓아야 하며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다고,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그렇듯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희한한 창조물도 하나의 작은 모래알에 비기시니 정녕 그이께서 간직하신 리상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끝은 어디인가.

마디마디에 인민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도 사연깊은 《단풍》호와 《무지개》호배들은 인민의 천만가지 꿈을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끝없이 전하며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 배고동소리를 정답게 울려가고있다.

《민들레》 학습장과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이 땅의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들판 그 어디서나 흔하게 자라지만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와 그윽한 향취를 안겨주는 민들레.

그 민들레가 우리 아이들이 즐겨 쓰는 학습장의 이름으로 되기까지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4월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 공장으로 말하면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로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는 공장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질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그리도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깊은 모습이야말로 그이께서 안고계시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세계를 다 말해주고있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좋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

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와 선률이 쟁쟁히 들려왔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

참으로 숭고한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였다.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움터나는 사상감정이다.

나서자란 고향과 자기의 부모처자, 자기의것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애국자가 될수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눈동자에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서 바라보던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영원히 새겨주시려고 학습장의 이름에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민들레로 달아주시였으며 공장의 명칭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신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진정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어버이의 사려깊은 말씀이였다.

이렇듯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내 조국의 하늘가로는 민들레학습장을 번지며 푸른 꿈을 키워가는 복받은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오늘 후대들을 조국의 제일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즐겨 메고 다니는 《소나무》책가방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소나무》책가방!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치 태여난 아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이름을 달아주려고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을 안으시고 몸소 달아주신 이름이다.

여기에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그 푸르고 억센 기상처럼 이 나라의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자존심을 뼈대처럼 굵게 간직하고 소나무처럼 굳세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겉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느라면 2017년 새해 첫 현지지도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그날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왔는데 올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

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으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가방생산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 질제고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종업원들이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일데 대하여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질좋은 학습장과 맵시있는 가방을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에서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시랴.

민들레학습장공장에 가시여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또 오늘은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실 때 자식을 키우는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은 격정의 눈물을 끝끝내 쏟고야말았다.

한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기를 품어주는 따스한 요람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요람가에 떠도는 훈훈한 온기라고 하였다.

따뜻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웅심깊고 강렬한 아버지의 정도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크고 더 열렬한 사랑이 바로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다.

진정 그이는 삶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도 아이들의 웃음속에서 찾으시는분, 그 웃음을 지키는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는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오늘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은 민들레학습장과 《소나무》책가방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기대를 소중히 새겨안고 사랑하는 조국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쳐갈 미래의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려명거리》

《조선은 최근 몇해안에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방대한 자금이 드는 그 크고 현대적인 집들이 국가부담으로 건설되여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는것이다. 참으로 사회주의본태가 약동하는 인민의 나라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하였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의 인상담의 일부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번화한 거리들도 수없이 많고 현대문명을 뽐내는 건축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 나라의 령도자가 건설주, 시공주

가 되여 인민들이 쓰고살 주택거리건설을 몸소 지도해주고 거리의 이름까지 달아준 그런 례는 세상에 없다.

무한한 우주공간을 날아예는 위성이라는 그 이름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나라의 평범한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사로운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전해주고있다.

대소한의 강추위가 강산을 얼구던 2014년 1월 어느날이였다.

한겨울의 차디찬 새벽공기가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아침 국가과학원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나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여기에 과학자살림집을 짓고 연풍호에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과학자들을 위해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과학기술문제에 앞서 연구조건문제, 생활문제부터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속에 휩싸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성시를 위성도시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당당한 위성발사국의 과학자들이 살게 된다는 의미도 담아 주택지구의 이름을 몸소 지어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 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을 취해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인데 나라의 전반사업을 다 돌보시는 그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몸소 뜻깊은 이름까지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착

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불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103(2014)년 10월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택지구를 부감하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미덥고 훌륭한 우리 과학자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고싶으신 진정이 가득히 차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태양만을 따르는 위성이 되여 한없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더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보답해나갈 애국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지도우에 아름답게 새겨진 행복의 보금자리들가운데는 그 이름도 뜻깊은 려명거리도 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사회주의선경거리로 희한하게 솟아오른 이 려명거리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그대로 주추돌이 되고 억년기둥이 되여 하늘높이 치솟아오른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이 거리의 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3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 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명해주신 새 거리의 이름을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억눌리고 천대받는 인민대중에게 운명개척의 새로운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밝은 세상을 일떠세워주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일찌기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리라는 철석의 맹세를 다지시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꽃피우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환희롭게 밝아오는 조선혁명의 려명이 사람들의 눈앞에 금시 펼쳐지는듯싶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려명거리를 보란듯이 일떠세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착공의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갔다.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2017년 3월 이른새벽 완공을 앞둔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 것만 같다고, 말그대로 려명거리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자연의 려명은 저 하늘의 태양이 주지만 행복의 려명은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 주는것이다.

한없이 위대한 인민의 태양이 빛나는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려명거리를 비롯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키돋움하며 솟구쳐오르고 그속에서 인민들은 복된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미래상점》과 《미래원》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있는 미래상점.

이 상점으로 말하면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상업봉사기지를 일떠세울것을 구상하시고 경치좋은 명당자리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설계와 시공, 건설자재와 상품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사연깊은 상업봉사기지이다.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주체101

(2012)년 1월 어느날 개점을 앞둔 미래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상점안을 숙연한 안색으로 둘러보시면서 매대들에 여러가지 상품들이 가득 진렬되여있는것을 보니 희한한 백화점에 온것 같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상점의 그 어디라 할것없이 다 돌아보시면서 상점의 운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상업봉사활동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중시에 애국이 있고 조국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 깊은 뜻을 담아 상점의 이름을 《미래상점》이라고 몸소 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상점의 간판도안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여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상점운영준비를 잘하였다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과학자, 기

술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세워진 미래상점을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훌륭한 상업봉사기지로 전변시켜주시기 위하여 몸소 위치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였으며 주체105(2016)년 3월에는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미래상점이 본래보다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우리 나라 상업봉사부문의 본보기로 꾸려짐으로써 상점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더 잘 받들어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래상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관점밑에 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완벽하게 갖춘것만큼 하루빨리 상점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이렇게 마련된 인민의 재부, 이렇게 솟아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세상에는 그 크기나 규모를 두고 혹은 화려함과 사치함을 두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번화한 상업봉사기지들이 많다.

하지만 명실공히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한 나라의 령도자가 그렇듯 세심한 관심을 돌리고 뜻깊은 이름까지 지어준 봉사기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들에 현대적인 도서관들을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잘 운영하도록 하시였으며 시, 군들에 새로 꾸려지는 과학기술보급기지인 도서관들을 《미래원》으로 부르도록 해주시였다.

미래!

누구나 그 이름 소중히 불러보면 과학기술발전에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다시금 뜨겁게 어려온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은

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미래상점과 미래원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내달리는 내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심어주고있다.

*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길에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들가운데는 어느 한 농장에서 시험재배한 새 품종의 먹이작물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일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몸소 지어주신 《애국풀》도 있고 나라의 축구열풍을 일으켜나가는데서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라는 뜻을 담아 친히 이름지어주신 《홰불》팀도 있으며 《미림승마구락부》, 《장자강인민유원지》, 《연풍과학자휴양소》, 《옥류아동병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룡악산비누공장》을 비롯하여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소중한 그 이름들을 부르고 또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을 전설처럼 길이 전해갈것이며 그이의 높은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이름에 비낀 사랑의 세계

집 필	한 진 아
장 정	김 영 희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7(2018)년 12월 11일
발 행	주체107(2018)년 12월 14일

ㄱ－1417ㄷ